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708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5월 13일 (음력 4월 9일) 월요일

Photo 漫評

자격미달

자유한국당 한선교사무총장이 7일 오전 당 사무처당직자에게 옥설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당 사무처 노조는 아예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 사무총장의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사실 상 사무총장직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당직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의 전국 순회 일정 등을 보고받던 중 한 당직자에게 "XX새끼야, X같은 새끼야" "까져" 등의 거친 욕설을 하며 안성을 높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제1사무부총장 등 당직자 7-8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무총장에게 욕설을 들은 당직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잠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인사의 추세를 상향해 본다.

글=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스시스



한선교



박지원



곱게 늘어라

시민들

5·18 학생 희생자 추모위한 행사 다채롭게 펼쳐진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학생들을 조명하고 그들을 추모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광주지역 각급 학교에서 진행된다.

묘지 참배와 현수막 게시는 기본이고, 음악회와 골든벨, 편지쓰기와 벽화제작, 추모 나무 심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교사 500여 명도 광주 현지에서 5·18을 주제로 교육자무연수를 받는 등 추모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12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살레시오고는 5월 항쟁 39주년 기념일인 오는 18일 작은 음악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해

음악회·골든벨·벽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

5월 항쟁기간 16개교 18명 희생, 총 20여명 실종

살레시오고·효덕초교 등 다양한 추모 행사 진행

에 이어 또 다시 열리는 것으로, 80년 5월24일 계엄군의 총칼에 희생된 명예졸업생 김평용(당시 고2)군 등의 넋을 기리기 위한 자리다.

김군은 자전거로 귀가하던 중 매복해 있던 군인들의 눈에 띄어 양쪽 복숭아뼈에 총

을 맞고 대검에 등을 찔려 숨진 뒤 안매장됐다 뒤늦게 발견됐다. 학교 측은 추모비를 세우고 분향소를 마련하고, 계기 교육과 음악회를 갖는 등 매년 그를 추모하고 있다.

충의과학기술고에서는 오월길 역사기행, 현수막 제작과 함께 5·18 관련 역사적 사

실을 주제로 '5·18 골든벨대회'를 열 예정이다. 80년 5월 이 학교 재학생 양창근군은 휴교령이 내려지자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로 나서 시위에 가담했다 실종된 뒤 망월묘역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조선대부속고는 2016년 추모비 건립, 2017년 추모공원 조성, 2018년 추모나무 식수에 이어 올해는 추모공원 앞 바다에 벽화를 제작할 계획이다. 5월 항쟁 당시 조대부고에서는 3학년 박성용군이 옛 전남도청에 이뤄진 마지막 항전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에 사살됐고, 1학년 임육환군은 계엄군의 집중 사격 이튿날인 5월22일 조선대 뒷산으로 피신하던 중 실종됐다.

나무 심기와 우체통, 주먹밥 만들기 등으로 모교 희생자 전제수(당시 4학년)군을 추모해온 효덕초교는 오는 13일부터 연세 동안 5·18 샌드 애니메이션과 추모편지, 3행시 짓기 등을 통해 어린 희생자의 넋을 위로할 계획이다. 전군은 80년 5월24일 동네 동산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갑작스런 총소리에 발라 도망치다 계엄군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았고 1989년에 비로소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대동고도 전영진(당시 고3)군을 기리는 추모 꽃나무를 교내 추모비 주변에 심고 시화전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군은 5월18일 참고서를 사려고 시내에 들렀다가 공수부대원에게 얻어맞은 뒤 울분을 참지 못하고 지

내다 사흘 뒤 다시 시내로 나갔다가 옛 전남도청 옥상에서 정조준한 계엄군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밖에도 무등중에서는 시화전이, 송원고에서는 민주헌터 조성사업이, 전남여상에서는 문예진이, 전남중에서는 컬러링 북 제작이, 조대부중에서는 주먹밥 나눠먹기 행사가, 동산중과 동성고에서는 기념식수가 있을 예정이다. 송원여상과 서광중에서도 관련 추모행사가 예정돼 있다.

전국 교사들의 연수 행렬도 이어진다. 지난해 인천지역 교원 70여명에 이어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강원지역 교원 40명이 광주 현지에서 5·18 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팔과 글을 넘어 역사적 현장에서 생생한 진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광주트라우마센터의 도움을 받아 5·18유족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오월극 전문극단 '보비' 공연 관람, 광주교사가 진행하는 사적지 안내와 특강, 수업 사례 발표시간 등을 가졌다.

한편 5월 항쟁기간인 80년 5월18일부터 27일 사이에 실종된 유아, 학생, 청소년은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만 20여명에 이른다. 계엄군에 희생된 초·중·고생은 16개교 18명이지만, 이들 실종자들은 아직까지 시신과 사인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인호 기자

스포츠 733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한반도의 사랑
당신을 위해

제29회 전라남도협회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축제

일시 : 2019년 5월 20일(월) 개회식 : 10:00
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우슬축구전용 2구장

주최 : 전라남도체육회, 해남군
주관 :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 해남군게이트볼협회
후원 : 해남군 스포츠사업단



조선로의 시간여행, '조만간' 신바람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신상 여행지에 선정된 강원군 강진읍 사의재 저잣거리에서 지난 12일 강진의 역사와 인물을 재현하는 문화관광 프로젝트 조만간(조선을 만난 시간의 줄임말) 마당극 공연이 관객들과 하나 되어 신명나게 펼쳐지고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두 번씩 열리는 이 공연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고교생부터 70대까지 지역 주민들로 조만간 프로젝트 아카데미를 통해 양성된 아마추어들로 다산 정약용 유배를 재현해 해학과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전남도, '완도해양치유센터' 신성장 관광콘텐츠 육성

전남도가 민선7기 김영록 도지사의 제1호 브랜드 시책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사업 콘텐츠에 해양치유산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치유센터'는 해양치유자원 발굴과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완도 신지면 명사리해수욕장 인근에 건립될 예정이다. 해양치유는 해양기후, 해수, 해양생물자원 등을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특일 등 선진국에서는 관광 및 휴양서비스와 연계한 해양치유관광단지를 조성해 해양관광산업의 블루오션으로 육성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일부 시군에서 해수 및 모래찜질, 해수탕 등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전남도는 이 점에 착안해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해양자원, 다시마, 미역 등 국내 생산 1위의 수산자원을 연계하면 성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완도군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해 해양치유자원 연구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센터 건립 예산 17억 원을 반영했다.

김경환 기자

◆ 본보 창간 12주년

기념행사 5월 31일